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재만*, 이병욱**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로성숙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마이스터고와 진로성숙도,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통해 2016년 완성학급이 된 37개 마이스터고등학교 1,66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70%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에서는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 탐색’과 ‘진로 준비 행동’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적응 집단이 부적응 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 부적응 수준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학년에서는 1, 2, 3학년 순으로 학교 부적응 점수가 높아졌지만, 진로성숙도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성적이 있어서는 성적이 높아질수록 학교 부적응은 낮았고, 진로성숙도는 높았으며, 계열에 따른 변인에서는 공업, 농·생명산업, 수산·해운 순으로 학교 부적응이 낮았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담임의 교과에 따른 분류에서는 보통교과가 담임인 경우가 진로성숙도가 더 높고, 학교 부적응이 낮았다. 졸업 후 진로에 따른 학교 부적응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비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 부적응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창업,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함께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제어 : 마이스터고, 진로성숙도, 학교 부적응

* 유재만,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063-730-5553

** 교신저자: 이병욱(educat21@daum.net), 충남대학교, 042-821-798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 진로 발달의 각 단계는 특징적인 발달과업을 가진다. 단계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 발달 단계 내에서 주어진 생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도 하게 되는데, 각 단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가 여부는 진로성숙도에 달려 있다 (Super, 1953). 이는 청소년기에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미래 한국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분야의 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정책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1·2차 선정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47개 학교가 지정되었고, 이중 43개 학교가 개교하였다. 나머지 4개 학교는 현재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된 마이스터고는 개교 이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수정 등(2014)의 보고서에 의하면 1·2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도 72.3%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고(이명훈, 조동현, 2011) 학교 소속감, 학교 만족도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훈, 김환식, 김효선, 2011).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1·2차 마이스터고 2기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29명 중 3,133명이 취업하여 91.4%의 취업률을 나타냈으며, 기업별로는 대기업 30.2%, 중견기업 9.6%, 중소기업 44.3%, 공기업 15.9%를 보였다(최수정 외, 2014).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만족도 역시 높아서 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 역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우 외, 2013).

그럼에도 2013년 기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학년 평균 3.5%로 나타나 특성화고의 중도 탈락률인 3.83%(임유화, 2012)에 비하여 적지 않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1~6차 마이스터고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정 외, 2014). 재학생들을 통해 확인한 진학 동기에서 취업 전망과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가장 높은 응답률(최수정 외, 2012; 2014)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율이 높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들이 진로 결정을 한 이후에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진로성숙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가 많고, 선택한 전공에서의 수행 수준이 떨어지며,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탐색할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3호 안건, 관계부처 합동(10.5.12))'에서 전문계 고교 명칭이 '특성화고교'로 변경되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76조의 2(10.6.29 개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이전 연구의 실업계, 전문계 등의 용어는 가능하면 기존의 용어를 따르되, 필요시 특성화고교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잠재적 부적응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공윤정, 2006). 즉,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후에 본인의 기대와 다른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잠재적 부적응 학생이 마이스터고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부적응 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이나 중도 탈락 및 징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부적응 학생과 이들의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잠재적 부적응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중도 탈락이나 진로변경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 및 적응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이스터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마이스터고 진로 선택에 따른 학교 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둘째,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간 진로성숙도는 배경 변인별로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은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분야에 취업을 한 이후에 계속 교육을 통하여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한구, 2012). 따라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진로란, 입학하여 해

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후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취업 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직업세계로 이동하는 행위와 그에 관련된 교육 훈련을 연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Smith & Rojewski, 1993). 같은 맥락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선진화를 위한 인재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급별, 기관 간, 교육과 산업 현장 간 연계된 성장 경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 트랙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졸업 후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마이스터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욱 외, 2008).

2. 진로성숙과 진로성숙도

김현옥(1989)은 진로 성숙이란 진로 의식, 탐색, 의사 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은경(1996)은 진로 성숙이란 개인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을 명확히 평가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준비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조성심(2010)은 자신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여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해가는 생애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결정, 이행하여 도달한 위치 또는 발달의 정도를 진로 성숙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 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정도의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고(오만록, 2011), 같은 맥락에서 진로성숙도란 자아의 이해 및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는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인재, 김봉환, 2008)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란, 진로 발달의 성과변인으로서 진로 탐색과 계획, 실행에 있어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실행력을 갖추어 획득한 진로 발달 연속선상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장수정, 2014)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성숙도를 정의하는 핵심 단어는 ‘준비도’, ‘발달’, ‘태도’, ‘능력’ 등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로 발달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 한다.

3.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과의 관계

학교 부적응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분명한 개념 설정을 하기 어렵다(류방란 외, 2007). 또한 부적응적 특성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하다가 적응적인 양상으로 변하기도 한다(윤철경, 최인재, 김유나, 2011). 부적응이란 적응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대, 지역, 사회, 문화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지만, 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연령 단계의 대부분이 취하는 평균적인 행동이나 사고에서 좋지 못한 쪽으로 크게 벗어난 행동이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 개인의 심신 안정에 장애를 주거나 집단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돈정, 2006). Lieberman(1958)은 부적응이란 개인의 능력과 개인 또는 외적 요구 사이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 부적응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응을 한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 귀속되며, 문제의 해결은 임상적 접근을 통해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박창남, 2010). 이와는 달리 김혜영(2002)은 기존의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곧 청소년의 발달적 미성취 내지는 사회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및 발달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한 제도교육이 되지 못할 때는 사회에서의 청소년 육성과 보호의 실패라는 관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부적응을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나 사회의 문제로 보는 관점으로서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 부적응을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학교 부적응 및 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학업 중단 또는 학교 중퇴 등을 학교 실패(school failure)로 보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에서 처음에 학교 실패 담론이 등장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등 학교에서 학생의 실패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그러한 실패를 유발하는 학교 교육 자체의 문제, 즉 학교의 실패라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나병현, 2001), 같은 맥락에서 곽중문(2002)은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현재 부적응 학생을 바라보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학교 부적응을 하는 학생이 무엇에서 잘못되었는가?' 라는 '개인적 행위'와 '어떤 사회 구조와 교육 제도가 학생들을 부적응하게 만드는가?' 라는 '사회 구조'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박창남, 2010).

이와 같이 학교 부적응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대안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재학 중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진로의 선택과 진로의사결정상의 연속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진로성숙 수준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학교 부적응은 개인의 진로성숙도와 그러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하였듯이 진로성숙도는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로 발달의 상대적인 위치이므로 마이스터고 학생이 학교라는 환

경 또는 제도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로와 관련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적 행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연구를 통하여 구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

대표적인 진로성숙도 검사도구로는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이 개발한 검사 도구와 임연, 정윤경, 상경아(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 그리고 임연 등(2012)이 개발한 검사도구가 있다. 이 중에서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통해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검사 도구는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 문항들이 많아 너무 많은 양의 읽기를 필요로 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어려운 직업 명칭 등이 사용됨으로써, 피험자의 읽기 능력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임연, 정윤경, 상경아, 2001). 따라서 진로 성숙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반 언어 능력 혹은 읽기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진로 성숙의 인지적 영역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며 검사의 개발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상황과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고(임연, 정윤경, 상경아, 2001), 2012년에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생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검사 도구를 개정하였다(임연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능력을 중시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마이스터고의 학교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임연 등(2012)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도구를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맥락과 학교 부적응이라는 연구 주제에 부합되게 일부를 재구성하여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의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

영역	문항 내용	하위 영역	정의
태도		독립성	진로 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영역	문항 내용	하위 영역	정의
능력	자기 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합리적 의사 결정	스스로가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정보 탐색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행동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	

출처 :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 지,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구성

2. 학교 부적응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 연구에 사용되었거나 개발된 부적응 측정 도구 중 이규미(2004)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 부적응 행동 지표라는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규미(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학생이면서 학교생활을 보다 잘 하기 위해 학업지도, 상담, 생활지도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개발된 검사도구가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표 2> 이규미(2004)의 부적응 행동 지표의 원척도와 신뢰도, 수정 문항과 신뢰도

요인명	원척도 문항	①	수정 문항	②
수업 및 학업 관련 행동	8. 수업 중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7.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11. 과제 및 준비물 지참에 무성의하다. 1.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2. 흥미를 갖는 교과가 없다.	.78	1. 나는 입학 후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2. 입학 당시 기대와 달리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다. 3.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4. 나는 수업 중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5. 나는 과제나 시험에 관심이 없다.	.85
문제 행동	47. 교내 폭력사건과 관련된다. 50. 음주를 한다. 51. 흡연을 한다. 45. 염색 혹은 화장 등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학교에 온다. 26. 불량한 학생들과 패거리리를 지어 다닌다. 42.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46. 또래들과 돈거래를 한다. 27. 학교 밖 친구들이 많고 자주 어울린다. 44. 학교에 책가방이나 교과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43. 학교 생활과 무관한 물품(사복, 음란	.92	1. 나는 불량한 학생들과 패거리리를 지어 다닌다. 2. 나는 학교 밖 친구들이 많고 자주 어울린다. 3. 나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4. 나는 학교 생활과 무관한 물품(사복, 음란서적, 게임기)을 갖고 다닌다. 5. 나는 학교에 책가방이나 교과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6. 나는 염색 혹은 화장 등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학교에 온다. 7. 나는 또래들과 학생 신분에 비해 규모가 큰 돈거래를 한 적이 있다. 8. 나는 교내 폭력사건과 관련된다. 9. 나는 음주를 한다.	.82

요인명	원척도 문항	①	수정 문항	②
	서적, 게임기 등)을 갖고 다닌다.		10. 나는 흡연을 한다.	
교우 관계	20.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야유)을 당한다. 21. 급우들이 짝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19. 또래 일을 교사에게 고자질한다. 22. 군것질이나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76	1. 나는 또래 일을 선생님에게 고자질한 적이 있다. 2.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야유)을 당한다. 3. 우리 학급의 급우들이 나와 짝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4. 나는 군것질이나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적이 있다.	.77
공격 /적 대적 행동	61. 남에게 책임전가를 한다. 60.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62.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 66.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행동을 한다.	.88	1.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2. 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를 한다. 3. 나는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 4. 나는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행동을 한다.	.70
교사 관계	30. 교사의 눈치를 심하게 살핀다. 31.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29. 교사를 피해 다닌다.	.85	1. 나는 교사를 피해 다닌다. 2. 나는 교사의 눈치를 심하게 살핀다. 3. 나는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84
우울 반응	56.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 53. 말이 적다. 55. 표정이 어둡다. 57.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 63.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83	1. 나는 평소에 말이 적은 편이다. 2. 나는 평소에 잘 웃지 않는 편이다. 3. 나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 4. 나는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 5. 나는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85

출처 :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 부적응 행동지표” 이규미 저, 2004, 한국심리학회지, 16(2), p. 234. 재구성. 주 : ①원척도의 Cronbach α , ② 본조사의 Cronbach α

3. 파일럿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 여부와 본 조사 도구 제작을 위한 다양한 수정 정보 수집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K 마이스터고의 1, 2, 3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조사지 모두를 회수하여 5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된 설문조사지의 신뢰도는 .828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 조사지는 2016년 완성학급이 된 37개 마이스터고에 우편을 통해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한 1,660부의 응답지 중 학교 일정상 응답할 수 없다고 알려진 2개 학교를 제외하고 총 1,469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 활용이 어려운 306부를 제외한 1,163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료 수집 결과

권역	배포 설문지	회수(회수율) 설문지	자료 분석 제외 설문지	최종 자료 분석 설문지
서울·인천·경기권	340	299(88%)	77	222(65%)
대전·세종·충청권	250	248(99%)	38	210(84%)
대구·경북·강원권	360	349(97%)	95	254(71%)
부산·울산·경남권	420	298(71%)	37	261(62%)
광주·전라·제주권	290	275(95%)	59	216(74%)
합계	1,660	1,469(88%)	306	1,163(70%)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 수준에 대한 결과 분석

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

조사에 참여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N=1,163)

측정 영역 \ 측정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진로성숙도	59.00	272.00	189.36	25.54

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표 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영역 분석 결과(N=1,163)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 (남=1,018, 여=145)		M	SD	t	자유도
독립성	남	34.24	5.97	-1.276	1161
	여	34.90	5.14		
직업에 대한 태도	남	29.86	4.26	-.966	217.711
	여	30.16	3.32		
계획성	남	22.64	3.18	.113	1161
	여	22.61	3.04		
자기 이해	남	31.24	5.04	-.124	1161
	여	31.30	4.62		
합리적 의사 결정	남	27.31	4.56	-2.147	1161
	여	28.17	3.98		
정보 탐색	남	15.25	2.76	-2.003*	1161
	여	15.74	2.56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남	20.04	4.84	2.746**	1161
	여	18.88	4.40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남	8.63	3.60	-.033	213.892
	여	8.63	2.88		
진로성숙도	남	189.21	25.82	-.516	1161
	여	190.38	23.48		

* p<.05, ** p<.01

〈표 5〉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t-test에서 진로성숙도 전체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진로성숙도의 합계 평균값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정선(2002)과 김유나(2009), 정홍란(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 탐색’은 여학생이 높았으며, ‘계획성’,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표본수가 작아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 여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외에 25개 학교나 되지만, 실제로 그 입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 될 경우 이 부분을 보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년별 진로성숙도 수준

〈표 6〉을 통해서 본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성숙도 점수상으로는 1학년이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았고, 3학년, 2학년 순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아직 입학 당시의 마이스터고 진학 동기가 유지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2학년과 3학년 진로성숙도의 경우는 은순(2003)의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점수에서는 2학년보다 3학년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3학년에 잔류중인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의지가 양극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취업처가 확정되었으나,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 졸업 후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에 잔류하고 있거나 여전히 대기업 및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취업에 큰 의욕이 없이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학생들이 공존해 있는 상황으로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반면 그 반대인 학생들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에 대한 태도’영역에서의 사후 검증에서 1학년(a)이 3학년(c)보다 높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위 영역 중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3학년 학생들이 학교 적응 및 직업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직업 정보에 많이 접하게 되며 문제 해결능력이 커진다고 한 김현옥(1989)의 연구 결과처럼 학교 부적응과 무관하게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는 3학년(c)이 2학년에 대해서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년별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영역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1학년 N=392, 2학년 N=470, 3학년 N=301)		M	SD	F	사후 검증
독립성	1학년(a)	34.50	5.79	.286	
	2학년(b)	34.20	5.86		
	3학년(c)	34.28	6.03		
직업에 대한 태도	1학년(a)	30.31	4.51	4.058*	a>c
	2학년(b)	29.87	3.77		
	3학년(c)	29.41	4.21		
계획성	1학년(a)	22.74	3.01	.421	
	2학년(b)	22.55	3.14		
	3학년(c)	22.63	3.38		
자기 이해	1학년(a)	31.46	4.68	1.153	
	2학년(b)	30.98	4.92		
	3학년(c)	31.39	5.47		
합리적 의사 결정	1학년(a)	27.65	4.36	.911	
	2학년(b)	27.35	4.52		
	3학년(c)	27.21	4.64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1학년 N=392, 2학년 N=470, 3학년 N=301)		M	SD	F	사후 검증
정보 탐색	1학년(a)	15.39	2.60	.642	
	2학년(b)	15.34	2.73		
	3학년(c)	15.16	2.94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1학년(a)	19.63	4.92	1.224	
	2학년(b)	19.93	4.72		
	3학년(c)	20.20	4.77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1학년(a)	8.59	3.23	3.387*	c>b
	2학년(b)	8.38	3.68		
	3학년(c)	9.05	3.59		
진로성숙도	1학년(a)	190.28	24.98	.465	
	2학년(b)	188.60	25.34		
	3학년(c)	189.33	26.59		

* p<.05

라.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성적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 인자(2002)의 연구 결과나 서정선(2002)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와 같이 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 각 하위 영역들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 검증 결과 역시 성적 수준이 상(a)인 집단이 전 영역에 걸쳐서 중(b), 하(c)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영역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상 N=346, 중 N=515, 하 N=302)		M	SD	F	사후검증
독립성	상(a)	36.31	5.62	31.911***	a>b, c
	중(b)	33.80	5.77		
	하(c)	32.93	5.77		
직업에 대한 태도	상(a)	30.75	4.73	10.991***	a>b, c
	중(b)	29.64	3.91		
	하(c)	29.36	3.70		
계획성	상(a)	23.57	3.23	22.727***	a>b, c
	중(b)	22.31	2.94		
	하(c)	22.12	3.22		
자기 이해	상(a)	32.65	4.92	20.500***	a>c, b
	중(b)	30.53	4.79		
	하(c)	30.86	5.10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상 N=346, 중 N=515, 하 N=302)		M	SD	F	사후검증
합리적 의사 결정	상(a)	28.47	4.38	19.818***	a>b>c
	중(b)	27.37	4.41		
	하(c)	26.28	4.52		
정보 탐색	상(a)	15.94	2.78	17.058***	a>b>c
	중(b)	15.25	2.68		
	하(c)	14.70	2.65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상(a)	20.70	4.77	7.213***	a>b, c
	중(b)	19.64	4.80		
	하(c)	19.41	4.76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상(a)	9.51	3.18	20.774***	a>b>c
	중(b)	8.54	3.33		
	하(c)	7.77	3.96		
진로성숙도	상(a)	197.90	25.59	31.071***	
	중(b)	187.09	24.59		
	하(c)	183.42	24.63		

*** p<.001

마.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소속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표 8〉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계열별 진로성숙도 수준을 확인해보면 공업계열이 진로성숙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수산·해운’ 계열이 진로성숙도 측정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해당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지원 동기와 졸업 후 진로가 다른 마이스터고에 비하여 확실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 검증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영역에서 수산·해운(c)계열 학생들이 공업(a)계열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영역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공업 N=1,051, 농·생명산업 N=59, 수산·해운 N=53)		M	SD	F	사후 검증
독립성	공업(a)	34.18	5.88	3.121*	
	농·생명산업(b)	35.73	5.47		
	수산·해운(c)	35.53	5.98		
직업에 대한 태도	공업(a)	29.89	4.14	.596	
	농·생명산업(b)	30.41	3.90		
	수산·해운(c)	29.58	4.76		
계획성	공업(a)	22.59	3.13	1.416	
	농·생명산업(b)	23.29	3.44		
	수산·해운(c)	22.77	3.38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공업 N=1,051, 농·생명산업 N=59, 수산·해운 N=53)		M	SD	F	사후 검증
자기 이해	공업(a)	31.21	4.95	.391	
	농·생명산업(b)	31.80	5.39		
	수산·해운(c)	31.34	5.46		
합리적 의사 결정	공업(a)	27.30	4.49	4.437*	c>a
	농·생명산업(b)	27.93	4.49		
	수산·해운(c)	29.09	4.36		
정보 탐색	공업(a)	15.26	2.74	2.472	
	농·생명산업(b)	15.59	2.92		
	수산·해운(c)	16.06	2.36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공업(a)	19.87	4.78	4.209*	c>a
	농·생명산업(b)	18.97	4.83		
	수산·해운(c)	21.53	4.94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공업(a)	8.55	3.56	2.960	
	농·생명산업(b)	9.34	3.22		
	수산·해운(c)	9.45	2.78		
진로성숙도	공업(a)	188.85	25.36	2.296	
	농·생명산업(b)	193.05	27.55		
	수산·해운(c)	195.36	26.11		

* p<.05

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표 9〉에서 확인된 졸업 후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2.0%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마이스터고 설립 취지에 맞도록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창업, 가업 승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록 학교에서의 전공이나 생활, 취업에 대한 의지 등이 부족할 수 있고 적성과는 맞지 않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있지만,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로 계획에 대한 ‘상(phase)’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분석에 있어서 해당 영역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9〉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그 하위영역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① N=678, ② N=409, ③ N=23, ④ N=53)		M	SD	F
독립성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34.35	5.64	.754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34.25	6.12	
	졸업 후 대학진학(c)	32.91	5.27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35.08	7.04	

진로성숙도 및 하위 영역 (① N=678, ② N=409, ③ N=23, ④ N=53)		M	SD	F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29.75	3.99	2,022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30.19	4.39	
	졸업 후 대학진학(c)	28.43	5.28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30.25	3.68	
계획성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22.61	3.18	.417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22.63	3.07	
	졸업 후 대학진학(c)	22.35	3.71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23.08	3.34	
자기 이해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31.21	4.95	3,233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31.05	4.86	
	졸업 후 대학진학(c)	31.26	6.19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33.30	5.63	
합리적 의사 결정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27.50	4.47	1,974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27.48	4.42	
	졸업 후 대학진학(c)	25.43	5.18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26.75	4.95	
정보 탐색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15.32	2.72	1,073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15.39	2.74	
	졸업 후 대학진학(c)	14.65	3.02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14.85	2.83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20.19	4.87	3,549*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19.33	4.58	
	졸업 후 대학진학(c)	19.26	5.04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20.79	5.16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8.70	3.60	.268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8.50	3.33	
	졸업 후 대학진학(c)	8.57	3.29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8.68	3.96	
진로성숙도	취업 후 현장 기술 전문가(a)	189.63	25.45	.896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b)	188.82	25.35	
	졸업 후 대학진학(c)	182.87	28.22	
	기타(창업, 가업 승계 등)(d)	192.77	26.96	

* p<.05

주 : ① 취업 후 현장전문가, ②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 ③ 졸업 후 대학 진학, ④ 기타(창업, 가업 승계)

2.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분석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 오차	Durbin-Watson
1	.543	.295	.290	12,10055	1,891

〈표 10〉의 회귀분석 모형 요약에서 'R²'와 '수정된 R²' 값을 살펴보면 'R²'가 .295, 수정된 R²가 .290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로성숙도의 각 하위 독립변수들은 학교 부적응에 대하여 29.0%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R²'가 'R²'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값'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므로(송지준, 2012), 본 회귀분석에서 'Durbin-Watson값'은 '1.891'을 나타내고 있어 분석 모형이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분산분석 결과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 모형	70680.542	8	8835.068	60.339***	.000
잔차	168972.517	1,154	146.423		
합계	239653.059	1,162			

***p<.001

〈표 11〉에서 진로성숙도 각 하위 영역과 학교 부적응의 하위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SSR)은 70680.542이며, 설명되지 않는 분산(SSE)은 168972.517이다. 두 평균 제곱 값들의 비율은 F값으로서 60.339이며 이에 대한 유의 확률 p<.001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

〈표 12〉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계수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t	VIF
학교 부적응	상수	111.842		38,141	
	독립성	-.419	-.171	-3.995***	3.009
	직업에 대한 태도	-.536	-.155	-4.637***	1.828
	계획성	.180	.040	.963	2.765
	자기 이해	-.137	-.048	-1.167	2.727
	합리적 의사 결정	-.643	-.201	-4.295***	3.600
	정보 탐색	-.505	-.096	-2.189**	3.171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100	.033	1.135	1.413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242	-.059	-2.169**	1.220

p<.01, *p<.001

〈표 12〉를 살펴보면 VIF값이 10미만이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1). 본 연구 결과에서의 값이 '1.220~3.600' 사이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모두 이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진로성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인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 탐색',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영역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립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학교 부적응은 '.171'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직업에 대한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1만큼 증가할 때, 학교 부적응이 '.155'만큼 감소하며, '합리적 의사 결정'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이 '.201'만큼 감소하였고, '정보 탐색'에 의한 학교 부적응은 '.096',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에 의한 학교 부적응은 '.05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계획성'과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은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계획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으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진로의 방향이나 희망하는 진입 가능한 직업 유형과 내용 등에 정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될 수 있다.

3.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간 진로성숙도의 배경 변인별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규미(2004)의 측정 도구는 표준점이 정해진 척도는 아니며, 표본 중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박장환(199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를 측정하여 보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를 확인하여 상위 30%를 기준으로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3〉 배경 변인에 따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간 진로성숙도 차이 분석 결과

배경 변인		분석 결과값	N	M	SD	t	자유도	유의 확률	효과 계수																																															
성 별	남	적응 집단	706	196.00	24.64	-14.467***	1016	.000	.413																																															
	부적응 집단	312	173.85	21.53	여					적응 집단	117	193.03	22.78	-2.841**	143	.005	.231	부적응 집단	28	179.32	23.54	1	적응 집단	292	195.77	24.47	-8.003***	390	.000	.376	부적응 집단	100	174.27	18.89	학 년	2	적응 집단	338	194.07	24.53	-7.905***	468	.000	.343	부적응 집단	132	174.70	21.90	3	적응 집단	193	198.01	23.93	-8.396***	299	.000
여	적응 집단	117	193.03	22.78		-2.841**	143	.005	.231																																															
	부적응 집단	28	179.32	23.54	1					적응 집단	292	195.77	24.47	-8.003***	390	.000	.376	부적응 집단	100	174.27	18.89	학 년	2	적응 집단	338	194.07	24.53	-7.905***	468	.000	.343	부적응 집단	132	174.70	21.90	3	적응 집단	193	198.01	23.93	-8.396***	299	.000	.437	부적응 집단	108	173.83	24.01								
1	적응 집단	292	195.77	24.47		-8.003***	390	.000	.376																																															
	부적응 집단	100	174.27	18.89	학 년					2	적응 집단	338	194.07	24.53	-7.905***	468	.000	.343	부적응 집단	132	174.70	21.90	3	적응 집단	193	198.01	23.93	-8.396***	299	.000	.437	부적응 집단	108	173.83	24.01																					
학 년	2	적응 집단	338	194.07		24.53	-7.905***	468	.000	.343																																														
	부적응 집단	132	174.70	21.90	3	적응 집단					193	198.01	23.93	-8.396***	299	.000	.437	부적응 집단	108	173.83	24.01																																			
3	적응 집단	193	198.01	23.93		-8.396***	299	.000	.437																																															
	부적응 집단	108	173.83	24.01																																																				

배경 변인		분석 결과값			t	자유도	유의 확률	효과 계수	
		N	M	SD					
성 적	상	적응 집단	292	201.71	23.54	-6.851***	344	.000	.346
		부적응 집단	54	177.31	26.62				
	중	적응 집단	367	192.51	23.70	-8.391***	513	.000	.347
		부적응 집단	148	173.66	21.45				
	하	적응 집단	164	191.52	25.38	-6.798***	298,517	.000	.366
		부적응 집단	138	173.80	19.88				
공 업	적응 집단	728	195.35	24.06	-13.517***	1049	.000	.385	
	부적응 집단	323	174.19	21.88					
계 열	농생명	적응 집단	47	196.72	28.61	-2.781**	28,558	.009	.462
	산업	부적응 집단	12	178.67	17.23				
	수산	적응 집단	48	197.92	25.30	-2.299*	51	.026	.306
	해운	부적응 집단	5	170.80	22.60				
담 임 교 과	전문	적응 집단	599	195.80	24.71	-12.873***	870	.000	.400
		부적응 집단	273	173.13	22.76				
보 통	적응 집단	224	194.97	23.55	-6.325***	158,523	.000	.449	
	부적응 집단	67	179.04	16.08					
졸 업 후	①	적응 집단	499	195.26	24.53	-11.112***	362,675	.000	.504
		부적응 집단	179	173.93	21.06				
진 로	②	적응 집단	279	195.59	23.81	-8.579***	407	.000	.391
		부적응 집단	130	174.31	22.37				
③	적응 집단	15	188.33	27.19	-1.291	21	.211	.271	
	부적응 집단	8	172.63	28.98					
④	적응 집단	30	204.37	25.13	-4.076***	51	.000	.496	
	부적응 집단	23	177.65	21.53					

*p<.05, **p<.01, ***p<.001

주 : ① 취업 후 현장전문가, ② 취업 후 대학교육 병행, ③ 졸업 후 대학 진학, ④ 기타(창업, 가업 승계)

〈표 13〉은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나누어 배경 변인별로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 변인은 모두 6가지로 ‘성별’, ‘학년’, ‘성적’, ‘학교의 계열’, ‘담임의 교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이다.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3학년의 경우가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3학년 현장실습 미파견자의 경우 미파견의 사유가 양극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의 계열에서는 전체 진로성숙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수산·해운’ 계열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나 진로성숙도가 매우 낮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담임교사의 담당교과에 따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보통교과가 담임인 경우에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6가지 배경 변인은 모두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에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test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므로 표본수가 많아지면 작은 차이에도 유의미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효과 계수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산출식을 통해 값을 확인하였고, 그 값의 범위는 .231~.504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에서 적응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부적응 집단의 진로성숙도보다 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 수준에 대한 결과 분석 결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 부적응 수준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학년에서는 1, 2, 3학년 순으로 학교 부적응 점수가 높아졌지만, 진로성숙도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높아질수록 학교 부적응은 낮았고, 진로성숙도는 높았으며, 계열에 따른 변인에서는 공업, 농생명산업, 수산해운 순으로 학교 부적응이 낮았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담임의 교과에 따른 분류에서는 보통교과가 담임인 경우가 진로성숙도가 더 높고, 학교 부적응이 낮았다. 졸업 후 진로에 따른 학교 부적응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비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 부적응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창업,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함께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에서는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 탐색’과 ‘진로 준비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적응 집단이 부적응 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은 5가지 하위 영역은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적응 집단의 경우 목표 설정과 비전 제시를 통한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부적응 집단의 경우 이러한 진로교육과 더불어 학교에 부적응할 수 있는 개인, 사회, 환경, 학교 요인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 집단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대안이 필요하다. 계열별로 볼 때 마이스터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계열이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낮고 학교 부적응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업계열 학생들에 대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부적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성적이 ‘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집단에 대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패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이스티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특성화고에 비하여 명확하게 ‘취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이스티고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대부분이 입학 원서를 쓰기 얼마 전이어서 다른 특수목적고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김도진, 2011)가 있다. 따라서 마이스티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마이스티고의 목표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생 및 학부모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이스티고의 학교 운영 목표와 인재상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마이스티고에 입학하는 이유가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의 입사를 위함이 아니라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학교나 소속된 교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꾸준한 진로교육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취업처 발굴 등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마이스티고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요인으로는 진로성숙도 외에도 학교, 가정, 사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해 부적응 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적응적 기질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담임교사 외에도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기숙사 사감 등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학교 내 진로지도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진로성숙도 검사지 외에도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년별, 성적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여 학생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공윤정(2006). 교육대학교의 잠재적 부적응 집단에 관한 연구: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적용. **상담학 연구**, 7(2), 417-432.
- 곽중문(2002). 학교를 버린 아이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81-117.
- 김도진(201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개인배경 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2(2), 55-80.
- 김유나(2009). **청소년의 진로 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우, 김형만, 장명희, 최수정, 허영준(2013).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 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2), 139-159.
- 류방란, 최윤선, 신희경, 이규재(2007). **학교 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장환(1996).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2010). 학교의 구조와 조직의 특성이 학교의 부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3), 165-184.
-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55-180.
- 서정선(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 변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12).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개정2판)**. 경기파주 : 21세기사.
- 오만록(2011). **생활지도 및 상담**. 서울 : 정민사.
- 유한구(2012).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철경, 최인재, 김유나(2011).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은순(200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습태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 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41.
- 이돈정(2006). **도서지역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 분석**.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훈, 조동현(2011).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직업교육연구**, 30(1), 291-311.
- 이병욱, 박철우, 이명훈, 조동현, 조종우, 박기문, 배동윤. (2008)**마이스터고 졸업 후 진로 모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은경(1996).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2002).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사와의 대인거리,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2011). **SPSS 18.0 매뉴얼**. 학지사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2012).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유화(2012). **특성화고 학생의 잠재적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인재, 김봉환(2008). **진로성숙도검사 실시요강**. 마인드프레스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정(2014).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홍란(2012).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교우 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심(2010).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수정, 김종우, 장명희, 한지영(2012). **마이스티고 운영현황 모니터링 분석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수정, 김종우, 장명희, 정희영(2014). **마이스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mith, JW Rojewski, (1993). *School to Work Transition Alternatives for Education Reform*. *Youth& Society*, 25(2), 222-250.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ABSTRACT>

The effect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ith respect to the impact on school maladjustment

Jae-Man Yoo*,Byung-Wook Le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ith respect to the impact on school maladjustment. Also, this study clarify the relationship. This study purpose is to permanently provide Meister as the basi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sector career education needed to faithfully serve as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Tools used for the survey is maladaptive measurement tools developed by Leegyumi (2004) and Career maturity measurement tools developed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2). Using these tools, a reliability test was conducted.

Meister students' career maturity was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f school mal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isted of career maturity and independence, attitude toward the job, planning, self-understanding, rational decision-making, information retrieval, knowledge of the desired job, career exploration and ready for action.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students' background variables are little girls was higher than boy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test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career maturity and school maladjustment differences of adaptation groups and maladaptive group in meister school students in background variables. A career maturity and school maladjustment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population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ackground variables.

key words : meister school, career maturity, school maladjustment

* Kunsan Mechanical & Technical High School, until35@jbedu.kr

** Correspondence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